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세계주교시노드

편람

(*VADEMECUM*)

지역 교회의 경청과 식별을 위한 공식 안내서

제1단계(2021년 10월 - 2022년 4월)

2023년 10월 세계주교시노드 총회로 이어질

교구와 주교회의 단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주교대의원회의



# 시노드를 위한 기도

## Adsumus Sancte Spiritus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회기는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원문 Adsumus Sancte Spiritus로 시작하는 기도로 개최되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공의회, 시노드, 교회의 다른 회의들에서 이 기도를 바쳤고, 이는 세비야의 이시도로 성인(560년경-636년 4월 4일)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이 시노드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바치는 이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초대한다. 그리하여 우리를 은총의 공동체, 은총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도록 성령께 청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질 시노드 여정을 위하여 우리는 이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줄여 모든 단체와 전례 회중이 좀 더 쉽게 바칠 수 있도록 제안한다.<sup>1</sup>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1. 기도문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Adsumus Sancte Spiritus)의 원문은 주교대의원회의의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목 차

## 시노드를 위한 기도

### 1. 서론 / 1

- 1.1 이 「편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 1
- 1.2 시노달리타스란 무엇인가?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배경 / 3
- 1.3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노드 과정의 목표들 / 4
- 1.4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 6
- 1.5 지역 차원의 체험 / 8

### 2. 시노드 과정의 원리들 / 11

- 2.1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 11
- 2.2 진정한 시노드 과정: 경청, 식별, 참여 / 12
- 2.3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 / 13
- 2.4 함정 피하기 / 15

### 3. 세계주교시노드 과정 / 17

- 3.1 교구 단계 / 18
- 3.2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의 역할 / 19
- 3.3 대륙별 단계 / 19
- 3.4 세계주교시노드 총회 / 19
- 3.5 이행 단계 / 20

### 4. 교구들 안에서 시노드의 길 걷기 / 21

- 4.1 교구 단계에서 예상되는 상황의 개요 / 21
- 4.2 시노드 과정에서 주교의 역할 / 24
- 4.3 시노드 과정에서 사제와 부제의 역할 / 26
- 4.4 로드 맵(교구 단계를 위한 표본 순서) / 27
- 4.5 시노드 체험의 기본적 구성 요소들 / 30

- 5. 시노드 과정 구성을 위한 자원 / 31
  - 5.1 교구 시노드 과정을 위한 방법론 / 31
  - 5.2 시노드 과정의 비격식 차원 / 32
  - 5.3 자문을 위한 주요 질문 / 32

감사 인사 / 36

## 부록

- (가) 교구 책임자(들)/팀 / 40
- (나) 시노드 자문 모임 조직을 위하여 제시하는 지침 / 44
- (다)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 / 48
- (라) 교구 종합의 준비 / 51

\* 주(註): 이 「편람」(*Vademecum*)은 가톨릭 교회 전체가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지역 교회’는 달리 말해, 교구, 동방 교회의 교구, 자치단 또는 그와 동등한 모든 교회 기구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이 「편람」에서 사용하는 ‘주교회의’라는 용어는 모든 자치(*sui iuris*) 교회의 적절한 시노드 기관에 해당한다.



# 1. 서론

## 1.1 이 「편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편람」은 시노드 여정을 위한 「예비 문서」(Preparatory Document)에 동반하는 안내서이다. 이 두 문서는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함께 읽어야만 한다. 특히 「편람」은 교구장 주교가 임명한 교구 책임자(들)/팀이 하느님 백성을 준비시키고 한데 모으는 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 지역 교회 내에서 하느님 백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신자에게 보내는 전 세계적인 이 초대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제1단계를 이룬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동안 지역 차원의 경청과 대화의 기회를 조성하시어, 교회가 그 깊은 시노드적 본질을 다시 한번 발견할 것을 요청하신다. 교회의 이러한 시노드의 근원을 재발견하는 데에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제삼천년기의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도록 부르시는지 겸손한 자세로 함께 배우는 과정이 포함될 것이다.

이 안내서는 규정집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가 펼치는 노력을 돕는 지침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의 단계를 조직할 책임을 맡은 이들은 각 문화와 맥락, 자료, 제약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리고 교구장 주교의 지휘 아래 교구 시노드 단계를 이행하는 방법을 식별하도록 권고한다. 여러분은 이 지침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분 각자의 지역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이 시노드 과정이 결실을 맺도록 함께 일하는 본당과 교구들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길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시노드 과정이 지역 사목과 경쟁이 되는 힘겨운 부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과정은 모든 지역 교회가 그 사명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변화와 사목적인 변화를 증진하는 기회가 된다.

많은 지역에서는 교구, 운동, 본당 차원에서 신자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을 이미 마련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교회 회의, 호주 전국 공의회, 독일과 아일랜드의 시노드 여정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지역 교회가 저마다의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많은 교구 시노드가 개최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과 교구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노드 과정들과 온 교회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단계를 창의적으로 연관 짓도록 부름받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노드 과정의 체험이 미지의 새로운 영역이다. 우리는 함께 걷는 우리의

여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훌륭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안함으로써, 이 「편람」을 통하여 제공된 자료들이 모든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안내서 외에도 「편람」에는 다음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가) 온라인 전례, 성경, 기도 자료, 나) 더 상세한 방법론적 제안과 도구, 다) 최근의 시노드 실천 사례, 라) 시노드 과정을 위한 용어.

이 경청의 단계가 경청만이 아니라 나눔에서도 마음을 열도록 돕는 영성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성경 묵상, 전례, 기도 안에서 시노드 과정의 지역적 체험에 뿌리를 둘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서로 경청하는 여정은 성령의 소리를 식별하는 참된 체험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식별은 깊이 성찰하는 시간과 상호 신뢰의 정신, 공통된 믿음, 공유하는 목적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비 문서」는 이번 세계주교시노드가 개최되는 맥락,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국지적 세계적 분쟁,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 이주, 다양한 형태의 불의, 인종 차별, 폭력, 박해 등 인류 가운데 증대되는 불평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성직자들과 축성된 이들의 성적 학대, 권력 남용,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sup>2</sup> 미성년자와 힘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도 그러한 맥락의 특징이 된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이번 세계적 위기는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자각을,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32항)는 자각을 되살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맥락은 분명 시노드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세계적 유행은 실제 이동상의 도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나아갈 길에 관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때인 인류 역사상 이 결정적인 시기에 교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복돋을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교회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셔야 하는 말씀에 다 함께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쇄신될 수 있는 길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함께 걷는 여정은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서 서로 더욱 깊은 일치룰 이루게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예언적 증인으로서 다른 형제 그리스도교 교파와 타 종교 전통과 함께 온 인류 가족을 품어 안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파견하기도 한다.

---

2. 프란치스코,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 2018.8.20.



## 1.2 시노달리타스란 무엇인가?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배경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를 소집하심으로써, 교회의 삶과 사명에 결정적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하여 성찰하도록 온 교회를 초대하신다.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이다.”<sup>3</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교회 ‘쇄신’(aggiornamento)의 길을 따르는 이 공동의 여정은 하나의 선물인 동시에 과업이다.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에 관하여 함께 성찰함으로써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서로의 체험과 관점에서 배울 수 있다(『예비 문서』, 1항 참조).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빛을 받아 기도 안에 하나 되어, 하느님 뜻을 찾고 하느님께서 따르라고 부르시는 길인 더욱 깊은 친교, 더욱 온전한 참여, 세상 안에서의 사명 수행에 대한 더욱 열린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시노달리타스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노드’는 교회의 거룩한 전승 안에서 사용되어 온, 오래되고 존중되어야 할 단어다. 그 의미는 계시의 더 깊은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다. …… 이 단어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또한 본디부터 그분의 뒤를 따라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불리던 그리스도인들을 연상시킨다(사도 9,2; 19,9,23; 22,4; 24,14,22 참조).

무엇보다 먼저,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삶과 사명을 특징 짓는 고유한 방식 (lo stile)이다. 이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본질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주 예수님께서 소집하신 회중으로 모이는 것임을 드러내 준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신 친교 안에서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자 성령과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준다. 끝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순례하며 선교하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예비 문서』, 1항 참조).

하느님 백성 전체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공통된 품위와 소명을 나눈다. 우리는 모두 세례의 힘으로 교회의 삶에 능동적 참여자가 되라고 부름받는다. 본당, 소공동체, 평신도 운동, 수도 공동체, 또 다른 친교의 형태들 안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서로 경청하도록 초대받는다. 이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이끌어 주고자 오시어,

3. 프란치스코, 주교시노드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17.

교회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 안에서의 우리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깊은 친교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재촉에 귀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이 시노드 여정을 시작하기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에서 진정한 경청과 식별의 체험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해야 한다.

### 1.3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노드 과정의 목표들

교회는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필수적 부분임을 인식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보편 공의회,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시노드, 교구와 본당 평의회에서 드러난다. 교회 전반에는 이미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존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참으로 시노달리타스는 하나의 행사나 표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식이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존재 양식이다. 교회의 사명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저마다 핵심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갈 것을 요구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사명을 추구하며 친교 안에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 이번 시노드 과정의 목표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시노달리타스를 일시적 또는 그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욱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법을 함께 식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실 가운데 하나가 주교시노드의 제정이었다. 지금껏 세계주교시노드는 교황과 함께 교황의 권위 아래 주교들의 회합으로 개최되어 왔지만, 교회는 시노달리타스가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그렇기에 시노드 과정은 더 이상 주교들의 회합만이 아니라 전 신자를 위한 여정이며, 그 안에서 모든 지역 교회가 긴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든 평신도든 세례 받은 모든 이가 교회의 구원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지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교회 헌장 32-33항 참조). 신자들은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쇄신과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은총과 은사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교황과 주교들의 교도권은 하느님 백성의 생생한 목소리인 신앙 감각과 대화하고 있다(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 74항 참조).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하느님 백성의 생생한 목소리 안에 근거하여 최대한 하느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사목적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68항 참조). 평신도와 서품 받은 이들과 수도자 등 여러 신학자들과의 협력은 실제 살아온 체험을 기초로 신앙의 현실을 표현하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뚜렷이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개최된 세계주교시노드들이 새로운 복음화, 가정, 젊은이, 아마존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면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바로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과 같은 근본 질문이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현재의 시노드 과정을 이끌고 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 주는 이 '함께 걷기'가 오늘날 지역 차원부터 보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로 자라나기 위하여 어떤 순서를 밟아가도록 초대하시는가?(「예비 문서」, 2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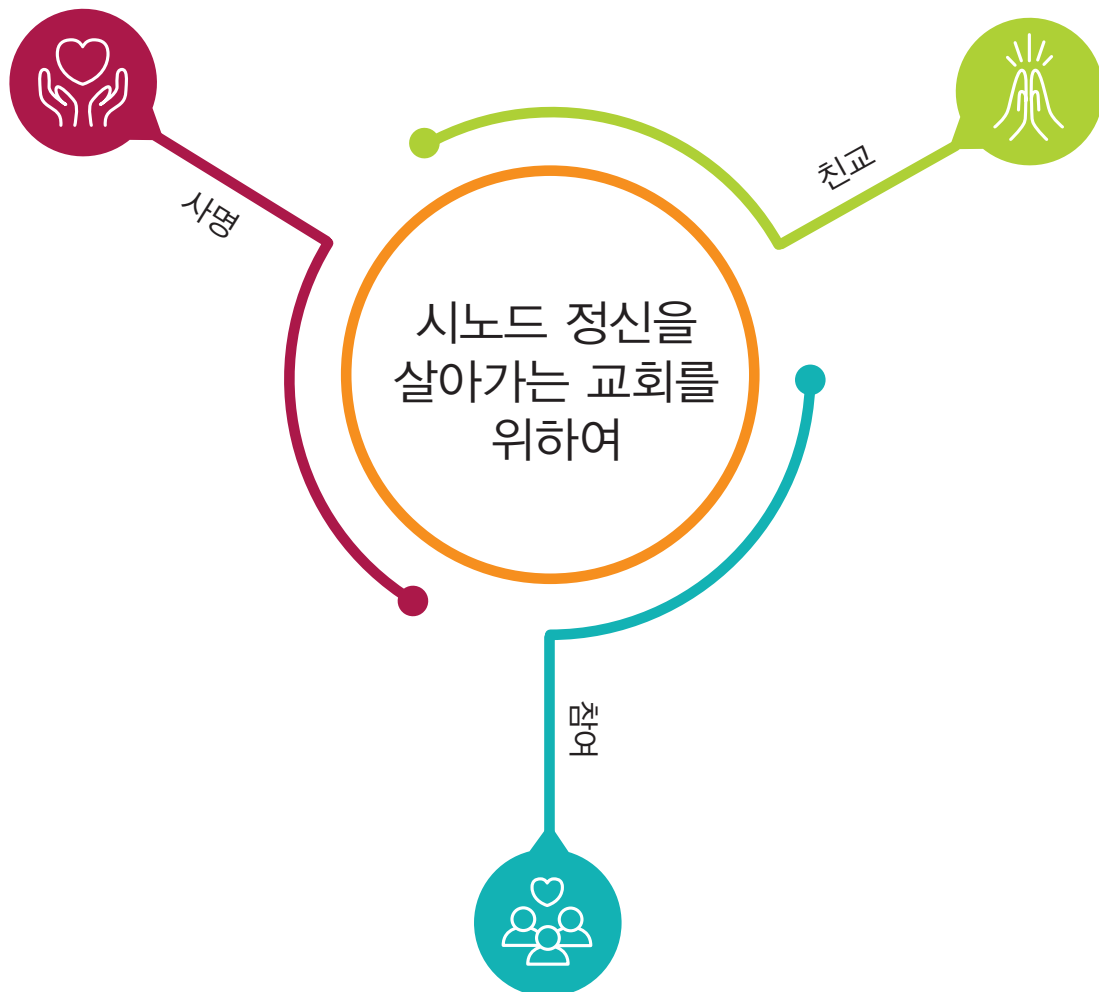
이 질문에 비추어 이번 세계주교시노드 목표는 하느님 백성 전체로서 성령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경청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 말씀과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에 함께 귀 기울이고, 그런 다음 서로에게,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시대의 표징을 식별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노드 과정 전체는 식별, 참여, 공동 책임의 생생한 체험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사명을 위한 다양한 은총들이 이러한 생생한 체험 안에서 한데 모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목적은 더 많은 문서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우리가 이루라고 부름받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희망이 꽃피게 하며, 신뢰를 증진하고, 상처를 감싸 매며, 새롭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내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다리를 놓고, 생각을 밝히며, 마음에 온기를 주고, 공동 사명을 수행할 우리 손의 힘을 다시 북돋워 주려는 것이 목적이다(「예비 문서」, 32항 참조). 따라서 이 시노드 과정의 목표는 그저 시작과 끝이 있는 일련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의 교회가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친교와 사명을 향하여 참으로 자라나는 여정이다.

이러한 함께 걷기는, 교회가 우리 시대의 표징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사고방식과 교회 구조를 쇠신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교회가 최대한 하느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사목적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8항 참조). 교회의 이러한 시노드 여정의 방향을 이끄는 궁극적 관점은 하느님과 인류와의 대화에 봉사하는 것이고(계시 현장 2항 참조),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다(교회 현장 9항;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20항 참조). 결국 이 시노드 과정은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교회를 향한 전진을 추구한다.

## 1.4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2015년 10월에 있었던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며, 우리가 반대받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세상은, 교회 사명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굳세게 협력해 나갈 것을 교회에 요구한다.” 이처럼 교회 사명에 협력하라는 요구는 하느님 백성 전체를 향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시어 치유를 향한 교회의 노력에 이바지하도록 그들을 초대하심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우리에게 매우 절실히 필요한 교회와 사회 변화에 동참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개인적 공동체적 회개를 요청한다.” 2021년 4월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시노드 여정을 시작하셨다. 이 여정은 2021년 10월에 각 지역 교회에서 시작하여 2023년 10월에 세계주교시노드 총회로 그 정점을 이룰 것이다.



## 시노드 과정을 위한 핵심 단어

세계주교시노드 주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다. 이 주제의 세 가지 차원은 각각 **친교**, **참여**, **사명**이다. 이 세 가지 차원들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차원들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핵심 기둥들이다. 세 차원 사이에는 어떤 위계도 없다. 오히려 하나하나가 다른 두 차원들을 풍요롭게 하고 이끌어 준다. 그 세 차원들 사이에는 세 차원 모두를 아울러 고려하며 표현해야 하는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친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은총 어린 뜻에 따라 같은 신앙을 지닌 다양한 민족들인 우리를 당신께서 백성과 맺으시는 계약을 통하여 한데 모으신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친교는 삼위일체의 사랑과 일치에 그 가장 깊은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다 함께, 살아 있는 교회 전승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영감을 얻고 우리가 공유하는 신앙 감각에 뿌리내린다. 우리는 모두 당신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데에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참여:** 서로 깊이 존중하며 경청하도록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이, 곧 평신도, 축성 생활자, 서품 받은 이를 포함하라는 요청이다. 이러한 경청은 우리가 다 함께 성령께 귀 기울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제삼천년기의 교회를 열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참여는, 모든 믿는 이가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성령께서 저마다에게 주신 은총을 통하여 서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전체는 그 구성원들이 지니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더 부합하는 사목적 결정들을 내리고자 함께 기도하고 경청하며 분석하고 대화하며 식별하고 조언하도록 부름받는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7-68항 참조). 소외되거나 배척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면 참된 노력이 필요하다.



**사명:** 교회는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한다. 결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명은 온 인류 가족 한가운데서 하느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시노드 과정은 심오한 선교적 차원을 지닌다. 이는 교회가 특히 이 세상에서 영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리적, 실존적 변방에 살고 있는 이들과 함께 복음을 더욱 잘 증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나라의 오심을 위한 누룩인 교회가 자신의 복음화 사명을 세상 안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된다.

## 1.5 지역 차원의 체험

시노드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지역 교회 안에서의 경청 단계이다. 2021년 10월 9일 토요일에 로마에서 있을 개막식 거행에 이어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단계는 2021년 10월 17일 주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시노드 여정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총장 마리오 그레크 추기경은 2021년 5월에 모든 주교에게 서한을 보내, 지역의 경청 단계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나 팀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책임자나 팀은 교구와 본당 간 연락은 물론 교구와 주교회의 간의 연락도 담당한다. 지역 교회들은 각 주교회의에 답변을 제출하여, 주교회의가 2022년 4월 마감 이전에 아이디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들은 주교대의원회의에 종합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이 종합 정리되어 두 차례에 걸쳐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을 마련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2023년 10월에 로마에서 세계주교시노드 총회가 개최될 것이다.

「예비 문서」 31항에 언급된 대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시노드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폭넓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증진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다른 양상과 측면들 안에서 실천된 시노달리타스로 쌓인 풍요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때, 모두 다른 차원들에 있는 (지역) 교회들의 목자들과 신자들을 구체적인 지역 현실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통하여 포함한다. 곧 자문은 주교의 주재 아래에서 “자기 (지역) 교회의 신부, 부제, 평신도에게 개별적으로 또 그 연합회들”도 향한다. “이때 남녀 축성 생활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주교시노드에 관한 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7항). (지역) 교회들의 참여 기구들, 특히 사제 평의회와 사목 평의회의 의견이 특별히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형태를 [참으로] 취하기 시작할 수 있다.”<sup>4</sup> 이와 더불어 「예비 문서」가 (그리고 이 「편람」이) 전달될 다른 교회 기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직접 제출될 의견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책임을 맡은 이들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그 자리를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수도 공동체, 평신도 운동, 신자 단체, 그 밖의 교회 단체가 지역 교회의 맥락 안에서 시노드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주교들의 친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모든 단체나 개인 또한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에 직접 의견을 보낼 수 있다.

---

4. 프란치스코, 주교시노드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 제6조 하느님 백성의 자문

- ① 하느님 백성의 자문은 개별 교회 안에서, 총대주교좌와 상급 대주교좌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주교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각의 개별 교회에서, 주교들은 법으로 규정된 참여 기구들을 통해, 그러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방법들도 배제하지 않으며,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며 진행한다.
- ② 남녀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연합회, 연합, 협의회는 상급 장상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상급 장상들도 자기 평의회와 다른 수도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성좌의 인준을 받은 신자 연합회도 같은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 ④ 교황청 부서들은 각자의 개별 관할 분야들을 고려하며 의견을 제출한다.
- ⑤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는 다른 형태로도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각각의 경청 단계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채 동떨어져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도시 상황에 있는 이들과 다른 참여 방식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시달리고 있는 공동체들은 많이 회복된 상태의 공동체들과는 다른 형태로 대화와 경청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 상황과 상관없이, 교구 책임자(들)는,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면서 **최대한의 포용과 참여에** 집중하며, 가능한 많은 이들, 특히 **종종 제외되고 잊힌 변방에 있는 이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능한 가장 폭넓은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교구, 주교회의, 온 교회 차원에서 만들 종합에 하느님 백성이 놓인 참현실과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확실히 담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 백성의 이러한 참여는 근본적인 것이고 많은 이들이 시노달리타스를 처음으로 맛보게 하는 것이기에, 각 지역에서 하는 경청 활동은 이번 시노드 여정을 북돋워 주는 친교, 참여, 사명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차원의 시노드 과정의 전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식별:** 경청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 **접근성:** 지역, 언어, 교육, 사회 경제적 지위, 능력/장애 그리고 물적 자원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문화적 인식:** 지역 공동체 안의 다양성을 기념하고 받아들인다.
- **포용:**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이들을 포함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동반 의식:** 공동 책임을 지니는 교회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

- 존중: 모든 참가자의 권리, 존엄, 의견을 존중한다.
- 정확한 종합: 참가자들 가운데 소수만이 밝힌 의견을 포함하여 비판부터 칭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점의 모든 답변을 참되게 담는다.
- 투명성: 초대, 포함, 포용과 의견 통합의 과정들을 분명하게 잘 전달하기 위함이다.
- 공정성: 경청하는 과정에 모든 이가 공평하게 참가하여 모든 이의 목소리를 적절히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교구 책임자(들)는 지역 교회 안에서 생생한 체험의 풍요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교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시노드 과정의 원리와 대화의 구조가 필요함을 명심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는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효과적으로 「의안집」 작성에 반영될 수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





## 2. 시노드 과정의 원리들

### 2.1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이에게 다가갔는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양 떼의 한 목자로서(요한 10,16 참조) 당신께서 한테 모으신 백성으로도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직무는 그 누구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복음화 활동과 구원 메시지는 가능한 가장 많은 청중을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이 열린 마음이 없다면 이해될 수 없다. 복음서들은 이 청중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각 사람으로 구성된 **군중**이라고 표현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교회 헌장 13항).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함께하도록 모으신 백성 전체 안에서 진정 일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 도유를 받는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교회 헌장 12항). 공의회는 더 나아가 그러한 신앙 감각은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것이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시대의 징표들을 읽어 내면서 만백성 사이의 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 사실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교구 단계의 목표는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노드 과정이 세례 받은 모든 이에 대한 경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를 소집함으로써 세례 받은 모든 이가 교구 차원에서 시작되는 이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교구들에 이 시노드 체험의 핵심 주체들이 세례 받은 모든 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요청한다. 배제될 위험이 있는 이들, 곧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노인, 빈곤 속에 사는 이들, 신앙생활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하는 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창의적인 수단도 찾아야만 한다.

아울러,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신앙 감각의 주체, 곧 하느님 백성의 살아 있는 목소리이다. 동시에 식별 행위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 받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떠난 이들, 다른 신앙 전통을 지닌 이들, 종교적 신념을 지니지 않은 이들 등을 포함하여 그들 지역 맥락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사목 헌장 1항).

그렇기에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시노드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유하게 불렸지만, 그 누구도, 어떤 종교적 신념을 지녔는지 관계없이 그들이 선하고 참된 것을 찾는 시노드 여정에 있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한, 자신의 관점과 체험을 나누는 데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특히 가장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 대하여 그러하다.

## 2.2 진정한 시노드 과정: 경청, 식별, 참여

시노드 과정은 무엇보다도 영적 과정이다. 이것은 기계적인 자료 수집 작업이나 회의와 토론의 연속이 아니다.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경청은 식별을 향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개인의 식별과 공동체의 식별 기술을 배우고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식별하고자 서로에게, 우리 신앙 전통에, 그리고 시대의 징표에 귀 기울인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경청 과정의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목표의 핵심이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뜻에 일치할 때까지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것”<sup>5</sup>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식별은 일회적인 작업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더 크신 하느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이다. 공동체의 식별은 오늘날의 교회 사명을 위한 활기 넘치고 탄력적인 공동체를 만들도록 돕는다. 식별은 하느님께 받는 은총이지만, 단순한 방식들, 곧 기도하기, 성찰하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참되고 의미 있고 환대하는 방식으로 서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기로 우리 인간의 협력을 요청한다.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식별의 몇 가지 열쇠를 제공한다. 영적 의미에서 식별은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에 유혹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의 갈망들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 해석하는 기술이다. 식별에는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찾아가 결정을 할 때의 우리 마음과 생각 모두와 관련된다.

경청이 시노드 과정의 방법이라고 하면, 식별은 과정의 목표이고, 참여는 그 여정이다.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시각을 지닌 이들과 함께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와 똑같은 시각을 지닌 이들을 경청하는 것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대화는 다양한 의견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포함한다. 사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쉽게 배제하거나 내치거나 무시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흔히 말씀하신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는 이들을 경청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주교시노드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 2.3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전망을 말씀하셨다. 시노드 과정에 참여할 때 진정한 경청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태도들은 다음과 같다.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데에는 나눔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유, 진리, 사랑을 통합하기 위하여 진정한 용기와 정직함(파레스시아[parrhesia, 담대함])으로 말하도록 초대된다. 모든 이는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 **말하는 용기에는 경청하는 겸손이 따라야 한다.** 모든 이가 말할 권리를 지닌 것과 같이, 모든 이의 말은 경청될 권리를 지닌다.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대화는 말할 용기와 들을 용기 둘 다에 달려 있다. 이 대화는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는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말을 성령께서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길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1코린 12,7 참조).
- **대화는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끈다.** 우리는 다른 이로부터 들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한다.
- **회개와 변화에 열린 마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행동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을 종종 거부하기도 한다. 우리가 단순히 예전부터 해 왔던 것들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안주와 편안함을 찾는 태도를 벗어나도록 부름받는다.
- **시노드는 교회의 식별 활동이다.** 식별은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이도록 부름받는다는 확신에 기반한다.
- **우리는 경청하고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의 표지이다.** 교회는 경청을 통하여 당신 백성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느님께서 몸소 보여 주시는 모범을 따른다. 시노드 과정은 우리가 이미 마련된 답이나 예단에 기대지 않고, 진정한 경청을 위하여 마음을 열 기회를 준다.
-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죄에 짓눌릴 수 있다. 경청으로 가는 첫걸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 곧 무지와 분열로 향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편견과 고정 관념에서 우리 정신과 마음을 해방하는 것이다.
- **성직주의라는 폐단을 극복한다.** 교회는 구성원 저마다가 유일무이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은사들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고 거룩한 하느님 백성으로서 동등한 품위를 지닌다.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모습을 보면, 진정한 힘은 봉사이다. 시노달리타스는 목자들에게는 돌보도록 맡겨진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도록 요청하고, 평신도들에게는 그들의 시각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요청한다. 모든 이는 친교와 공동 사명의 정신에 따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경청한다. 따라서 성령의 힘은 하느님 백성 전체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 **자기만족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 자기만족의 허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걸으며 서로를 섬길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위협하는 나이, 성, 재력, 능력, 교육 등의 장벽을 넘어 다리를 지을 수 있다.
- **이데올로기 극복.** 우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현실보다 이념들에 더 무게를 두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 **희망을 불어넣는다.** 옳고 참된 일을 하는 것은 주목받거나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멸망의 예언자가 아니라 희망의 횃불이 되도록 불린 것이다.
- **시노드는 꿈을 꾸고 ‘미래에 시간을 투자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미래의 전망을 만들어 내는 데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지역 과정을 만들도록 장려받는다. 아래 내용들은 참가자들을 도와줄 자세들이다(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hristus Vivit*] 참조).
  - **혁신적인 시각:** 창의성과 확실한 담대함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 **포용하기:** 교회가 지닌 풍요로운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는 참여적이고 공동 책임을 지는 교회는 우리가 때때로 잊거나 무시하는 모든 것을 포용한다.
  - **열린 마음:**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지 않고 열매 맺어 온 모든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경청하기:** 우리는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 본연의 모습인 놀라운 다양한 실재를 더욱 잘 성찰할 수 있다.
  - **‘함께 걷기’에 대한 이해:**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의 교회를 부르시는 길을 걷는 것이다.
  - **공동 책임을 지는 교회 개념에 대한 이해:** 온 교회의 쇄신과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고유한 역할과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포용해야 한다.
  -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를 통하여 접근하기:** 온 인류 가족은 모두 함께 꿈꾸고 함께 걸어야 한다.

## 2.4 함정 피하기

여느 여정과 마찬가지로, 이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함정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시노드 과정의 활력과 결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함정들은 다음과 같다.

- 1)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 시노달리타스는 공동 전략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 과정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길 위에 있는 순례자이자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조직적이고 협동적인 우리의 겸손한 노력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빚으신 분의 손에 담긴 진흙이다(이사 64,7 참조).
- 2) **우리 자신과 눈앞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려는 유혹.** 시노드 과정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관점에서 사안들을 살피고 선교 활동으로 변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회이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요구한다. 또한 우리의 시각을 교회 전체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라는 뜻이다. 지금 여기의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역 교회에서 하느님의 꿈을 실행할 수 있는가?
- 3) **오직 '문제'만을 보려는 유혹.**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교회는 많은 도전 과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만 있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낙담시키며 회의를 느끼게 할 것이다. 어둠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에만 집중하기보다 성령께서 어디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더 온전히 활동하시도록 할 수 있는지 찾도록 하자.
- 4) **오직 구조에만 집중하려는 유혹.** 시노드 과정은 더 깊은 친교와 더 충만한 참여와 더 풍요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구조의 쇄신을 자연스럽게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시노달리타스의 체험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조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식별하고자 함께 걷는 체험에 집중해야 한다. 구조의 변화와 쇄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의 지속적인 회개와 쇄신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 5) **교회의 가시적 한계 너머를 보지 않으려는 유혹.**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데에서 남녀 평신도들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이 세상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노드 과정은 재계와 학계, 정계와 문화계, 예술계와 체육계, 미디어계와 사회 정책 부분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생태와 평화, 생명에 관한 사안과 이주 상황에 대하여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의 우리 사명의 완수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 또한 이 시간은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과 함께하는 교회 일치 여정의 깊이를 더 심화하고 다른 신앙 전통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심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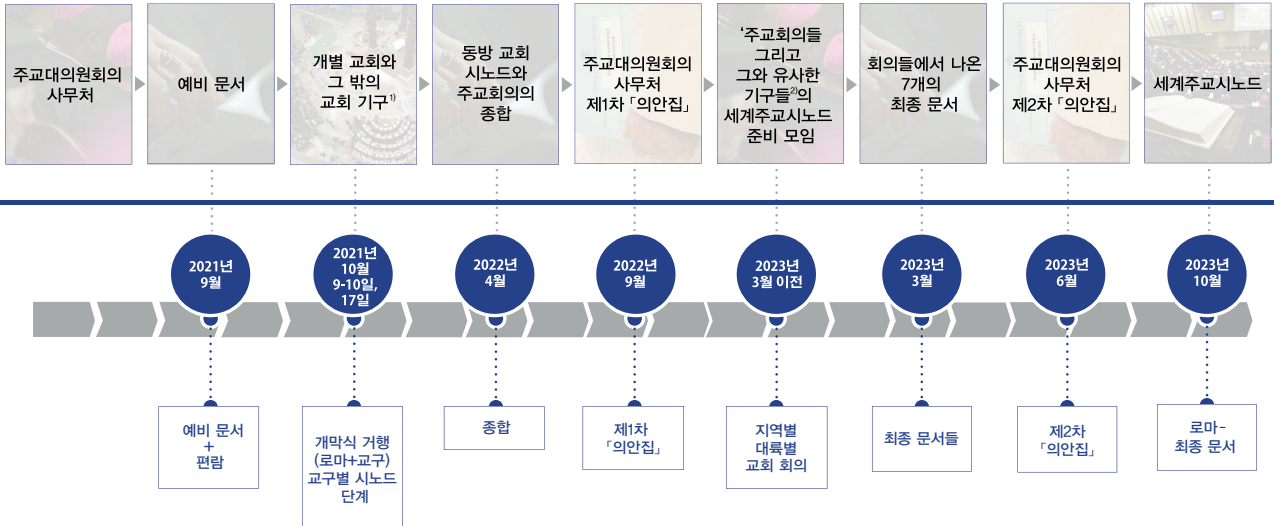
- 6) **시노드 과정의 목표들에 대한 집중을 흐리게 하려는 유혹.** 세계주교시노드의 여정을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는 폭넓은 논의를 펼치면서도 시노드 과정이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도록 부르시는지 식별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 번의 시노드 과정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시노달리타스는 시간을 들여 하느님의 결실을 함께 환영하고자 열린 마음을 지니는 공동 책임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와 접근이다.
- 7) **갈등과 분열의 유혹.**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성부께 간절히 바치신 기도이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과 그리고 서로 더욱 깊은 친교를 이루도록 이끄신다. 분열의 씨앗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이는 억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한 사람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도는 헛된 일이다.
- 8) **시노드를 의회의 일종으로 치부하려는 유혹.** 이 유혹은 시노달리타스를, 통치하고자 한 당파가 상대 당파를 이겨야만 하는 ‘정쟁’과 혼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적대시하거나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위협하는 분파적 충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 9) **이미 교회 활동에 속한 이들에게만 경청하려는 유혹.** 이러한 접근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 수월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 백성의 상당수를 무시하게 된다.



### 3. 세계주교시노드 과정

####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1) 교황청 부서들, 축성 생활회(세계 남녀 수도회 장상 연합회(UISG-USG)와 그 밖의 연합회들), 신자 단체들, 고등 교육 기관들  
 \*2) 아프리카(SECAM), 오세아니아(FCBCO), 아시아(FABC), 중동(GPCO), 유럽(CCEE), 라틴 아메리카(CELAM), 북아메리카(USCCB+CCCCB).



그림 1. 이 시각 자료는 시노드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지역 교회가 교구별 시노드 단계를 실행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예비 문서」와 「편람」을 발표한다. 교구 단계에서 얻을 결실들이 모여 각각의 지역 교회를 위한 종합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에서 받은 종합들에 기반하여 주교회의들과 동방 교회 시노드가 종합을 구성할 것이다. 다른 교회 기구들에도 이 「편람」과 설문(제5부 참조)을 전달하여 그들이 자문에 참여하고 각자 고유의 종합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교황청 부서들, 세계 남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Union of Superiors General: USG)와 세계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International Union Superiors General: UISG), 기타 축성 생활회 연합회들, 국제 평신도 운동들, 대학교들과 신학 대학들을 포함한다.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주교회의들과 동방 교회 시노드들, 그리고 「주교들의 친교」에서 언급된 다른 교회 기구들에서 받은 종합에 기반하여 제1차 「의안집」을 구성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제1차 「의안집」은 대륙별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3.3 참조). 대륙별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기반으로 2023년 10월에 개최될 세계주교시노드 총회 때에 사용될 제2차 「의안집」이 작성될 것이다(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 3.1 교구 단계

이 경청 단계의 풍요로움의 많은 부분은 본당, 평신도 운동, 학교, 대학교, 수도회, 이웃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회 운동,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운동들 그리고 다른 모임들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 나올 것이다. 주교들은 이 과정을 시작하여 교구 단계의 참여가 교구장 주교의 통상적인 소통 창구를 통하여 조정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당 사목 평의회가 있는 본당들과 교구 사목 평의회가 있는 교구들에서는, 변방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개별 교회 단계의 시노드 과정을 조직하고 촉진하며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이 '시노드' 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구들과 본당들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친교와 더욱 충만한 참여, 그리고 더욱 풍요로운 사명을 촉진하는 창의적인 방식들로 지역 교회의 삶 안에 시노드 과정을 통합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이 경청의 단계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이도록 하고, 영감을 주는 질문, 이미지, 시나리오들에 함께 응답하며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개인과 모임의 피드백, 아이디어, 생각, 반응, 제안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상황(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제한 또는 물리적 거리 등) 때문에 만나서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온라인 토론 모임, 자기 주도적 온라인 활동, 채팅 모임, 전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소통망뿐만 아니라 지면이나 온라인 설문을 사용할 수 있다. 기도 자료, 성경 묵상, 성음악 그리고 예술 작품, 시 등의 작업물도 성찰과 대화를 고무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교구 단계는 본당과 교구에, 만나고 체험하며 시노드 여정을 함께 살아 내는 기회가 되어 그들의 지역적 맥락에서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가장 적절한 수단과 길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지역 교회들의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번 시노드는 2023년 10월에 로마에서 열릴 세계주교시노드 총회를 도와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과정의 흐름과 미래로 나아가는 동안에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실천과 체험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미 이 여정을 시작한 지역 교회들에서 제공된 훌륭한 자료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의 교회 회의를 위한 방법론적 안내서」(*Methodological Guide for the Ecclesial Assembly of the Latin American Episcopal Conference*), 호주 전국 공의회와 그 주요 문서들이 있다. 여러분의 지역 교회 안에서의 작업을 돕고 고무하는 데에 이 자료들을 살펴보기를 권장한다.



### 3.2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의 역할

교구 단계가 교구의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과 교구 종합으로 마무리되고 나면,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는 교구에서 받은 답변과 피드백을 취합할 것이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종합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는 그들의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을 통하여 식별하고 폭넓은 종합을 모으도록 요청된다.

그런 다음, 이 종합들은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에서 발행할 제1차 「의안집」의 바탕이 될 것이다.

### 3.3 대륙별 단계

이 제1차 「의안집」은 일곱 대륙별 회의를 위한 ‘작업 문서’가 될 것이다. 일곱 대륙별 회의는 아프리카(SECAM), 오세아니아(FCBCO), 아시아(FABC), 중동(CPCO), 라틴 아메리카(CELAM), 유럽(CCEE), 북아메리카(USCCB와 CCCB)이다.

이 일곱 개의 국제 회의는 일곱 개의 「최종 문서」(*Final Document*)들을 만들어 낼 것인데, 이는 2023년 10월 세계주교시노드 총회에서 사용될 제2차 「의안집」의 바탕이 될 것이다.

### 3.4 세계주교시노드 총회

주교들과 참관인들은 2023년 10월 로마에서 열릴 세계주교시노드 총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와 함께 모여 지역 차원에서 시작된 시노드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말하고 들을 것이다. 주교시노드의 목표는 교구 단계,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 단계, 대륙별 단계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소리를 보편 교회적 차원에서 식별하려는 것이다.

### 3.5 이행 단계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교회의 친교, 참여, 사명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을 증진하려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행 단계는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함께 걸어 나아가는 데에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행은 세상 곳곳의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닿고자 하며, 그리하여 시노드 과정이 하느님 백성 전체를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도착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주교들의 친교』, 7항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교구 사목 평의회, 사제 평의회, 본당 사목 평의회를 포함해서 교구 단계에 참여하였던 교구 책임자(들)와 다른 사람들이나 기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노드 과정의 체험이 경청, 식별, 대화, 의사 결정에 새로운 봄기운을 불어넣으리라 희망한다. 그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서로 함께 그리고 온 인류 가족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더 좋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4. 교구들 안에서 시노드의 길 걷기

### 4.1 교구 단계에서 예상되는 상황의 개요

시노드 과정의 이 첫 번째 단계는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단계의 기반이 된다. 교구 단계는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시노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이 여정에 빛을 밝히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함께하시는 성령과 같은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들 듣고 이를 실행하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히 이어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늘 새로운 깊이를 밝혀 주시고, 교회의 여정을 지탱하고 그 사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감도하신다 (요한 14,25-26; 15,26-27; 16,12-15; 「예비 문서」, 16항 참조).

「예비 문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려는 우리의 여정에 영감을 주는 성경으로부터 얻은 두 가지 ‘표상’을 뼈대로 삼는다. 첫 번째 표상은 예수님께서 선포의 직무를 시작하신 이래로 복음화의 여정에 계속 동반되는 ‘공동체 모습’으로, 모든 이, 곧 군중, 사도들 그리고 주님께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예비 문서」, 17-21항 참조). 두 번째 표상은 베드로와 초기 공동체가 신앙을 전파하는 데에 부당한 한계에 놓이는 위기를 인식하는 때의 성령 체험을 언급한다(「예비 문서」, 22-24항 참조). 이 두 가지 표상들을 시노드 과정 안에서의 성장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성찰하도록 여러분에게 권장한다.

복음은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며 잊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예수님 직무 전반에 드러난 공통된 특징은 바로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때에, 곧 사람들의 호소가 들리고, 그들의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이 닿고, 그들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지고 그들의 존엄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확고해지며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때에 신앙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와 겪었던 체험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시노드 과정을 통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것으로 회개의 공통된 길로 이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서는 주로 경이로운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이다.

이것의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시키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시노드 과정의 교구 단계를 이끌고 활성화시키도록 임명된 교구 책임자(들)에게 주어진 일차적 책임이다. 사람들의 체험을 정확하고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모든 범위의 다양한 체험들을 표현하지 않는 공허하거나 판에 박힌 조언들은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구 단계는 최대한 폭넓은 참여를 끌어낼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변방으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로, 자신의 신앙을 거의 또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로, 빈곤이나 소외를 겪는 이들에게로, 난민, 배제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직접 다가가야만 한다.

시노드 체험의 핵심은 하느님 말씀의 감도로 서로를 경청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세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더욱 잘 듣고자 서로에게 귀 기울인다. 이는 한 번의 모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 더 알아가고 서로를 신뢰하고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하여 함께 걷는 진정한 시노드 체험이 되도록 상호 나눔의 분위기가 고조되도록 여러 번의 모임을 가지기를 강력히 권장한다. 서로 말하고 듣는 형식적인 측면들과 함께 비형식적인 시간을 보내는 모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순례, 단체 활동, 예술적 표현, 심지어 차 한잔을 나누는 시간으로도 서로 삶을 나누는 체험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각 지역의 상황에 달려 있다. 여러 본당들이 함께할 수도 있고, 보건 사목이나 가톨릭 교육, 수도 공동체, 평신도 운동 그리고 교회 일치 모임 등의 직무들이 함께할 수도 있다.

고무적인 질문들은 나눔과 경청의 이 체험을 시작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설문(제5부)에 제시되어 있다. 그 목표는 이 질문들에 모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역적 맥락에 가장 적절한 질문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질문들을 해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을 하기를 장려한다. 일반적인 안내이기에, ‘교의적’ 설명들보다는 개인적 이야기들과 실제 삶의 체험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의 종류를 더 강조한다. 몇 가지 사례들을 제5부에서 볼 수 있다.

경청 과정을 통하여 취합된 피드백은 ‘종합’에 담아야 한다. 아래 로드맵(4.4)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종합은 이 「편람」(제5부)에서 제시된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하여 교구 안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작성되어야 한다. 동시에 종합은 교구별로 작성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각 주교회의에서 작성될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든 이 종합들의 목표는 의논된 모든 사항의 중요약을 작성하거나 학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합은 교구로 보내고(교구 내의 자문인 경우), 최종적으로 주교회의(교구에서 작성한 종합인 경우)로 보냄으로써 무엇이 시노드 과정의 다음 단계에 기여할지 선택하고 글로 작성하는 식별의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은 단순히 공통된 시류나 수렴된 요점들을 보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금을 울리거나 고유한 관점을 복돋우거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요점들도 강조한다. 종합은 흔히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에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하고, 소위 ‘소수의견 보고서’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합해야 한다. 들은 내용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피드백은 긍정적인 체험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체험들도 드러내야 한다. 참여자들의 태도나 식별에 함께 참여하면서 느낀 기쁨과 어려움과 같은 지역 모임에서 체험한 것은 피드백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모임들에서 제출한 피드백은 교구 차원에서 전체 종합으로 취합될 것이다. 이 경청과 식별 과정의 끝에 각 교구가 공들여 작성할 종합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여정에 구체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종합은 시노달리타스의 길 위에 있는 지역 교회 여정의 다음 단계를 인식하는 데에 유용한 문서로 이용될 것이다. 시노드 과정의 이어지는 단계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찰의 결실들을 최대 열 장 이내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구 종합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덧붙이고나 다른 문서들을 첨부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교구별 또는 동방 교회 교구별 종합이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로 전달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와 같은 기구들은 그들이 취합한 교구별 또는 동방 교회 교구별로 작성된 종합을 기반으로 하여 앞서 설명된 식별의 정신과 동일한 정신으로 그들의 종합을 작성할 것이다. 주교회의와 동방 교회 시노드는 이 종합을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로 제출할 것이다.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나누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제1차 「의안집」을 작성할 것이다.

## 4.2 시노드 과정에서 주교의 역할

시노달리타스는 베드로의 후계자의 수위권 아래 있는 주교단의 사목적 권한과, 각자 자신이 맡은 교구 안에서 수행하는 각 교구장 주교의 사목적 권위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교 직무는 목자, 교사, 거룩한 예배의 사제가 되는 것이다. 주교의 식별의 은사는 그들에게 온 교회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수호자이자 해석자이며 증인이 되라고 요청한다.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교회 헌장 23항). 시노드 과정의 충만은 오직 교구장 주교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지역 교회들의 참여가 함께할 때에만 참으로 존재한다. “이 보편성의 힘으로, 각 부분이 그 고유한 은혜를 다른 부분들과 온 교회에 가져다주어, 전체와 각 부분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일치 안에서 충만을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에 자라나게 된다”(교회 헌장 13항). 지역 교회의 다양성과 그 맥락과 문화는 전체에게 다양한 선물을 가져다주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풍요롭게 만든다. 이것은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길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시노드 과정 안에서 교구장 주교의 최우선적 역할은 더욱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시노드 체험을 촉진하는 것이다.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의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을 경청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성령의 감도 아래 주교는 온 교회가 걷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따라, 자기 교구 안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가장 유용한 과정들을 식별할 수 있다.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자신의 임무에 도움을 주는 교구 책임자 또는 팀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주교는 이 시노드 과정의 교구 단계 안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권고된다. 그의 관여는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 안에서 열린 대화를 증진해야 한다.

주교는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피드백과 참여를 찾을 수 있다. 주교는 교구 사목 평의회, 사제 평의회, 본당, 수도 공동체, 평신도 운동, 다양한 사목 직무들(학교나 병원 등), 교구 위원회를 포함한 교구 안의 개별 기구, 기관, 구조들이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적절하게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들과의 대화에 초대될 수 있다.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책임자(들)는 자문 과정을 준비하고 촉진하고자 본당이나 다른 지역 공동체의 조정자들(coordinators)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동시에 주교는 재정, 운송, 기술, 인력들을 포함하여 적합한 자원들이 확보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주교는 다양한 단체들과 개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시노드 과정이 신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제, 부제, 남녀 축성 생활자, 평신도, 곧 하느님 백성의 충만한 다양성을 이루는 진정한 협력의 노력이 될 수 있다. 이미 시노달리타스의 수행을 목표로 하는 교구 구조들, 특히 교구 사목 평의회, 사제 평의회, 본당 사목 평의회 등은 이러한 관점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주교의 개인 서한 또는 영상 메시지는 교구의 모든 이가 이 경청과 대화와 자문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장려할 수 있다. 시노드 과정의 교구 단계를 주교가 집전하는 전례 거행으로 개막하고 폐막하도록 권장한다.

자문 과정 동안에 주교의 핵심 역할은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 과정에서 교구장 주교의 직접적인 관여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에게 권장되는 것은 참여와 신자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주교는 교구 전체의 지역 경청 회기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원한다면 교구 전역의, 특히 주변부의 대표자들을 초대하여 직접 임시(ad-hoc) 소공동체 모임을 주재할 수 있다. 또한 주교는 자문을 통하여 모인 피드백을 검토하는 것으로 경청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돌보도록 맡은 백성을 통한 성령의 말씀을 식별한다. 주교는 자문 과정을 검토하고 마주하는 어려움을 모두 다루도록 정기적으로 교구 책임자(들)를 만나야 한다. 주교와 성직자들의 존재가 신자들의 참되고 자유로운 발언을 억눌러서 그 효과를 무색하게 하지 않도록, 추문이 있어 온 상황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교는 교구 단계의 정점이 될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을 소집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하여 교구 책임자(들)와 함께 일한다. 이 모임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교구 전체를 부르시는 시노드의 길을 따라 기도하고 경청하며 성찰하고 식별하고자 함께 모이는 것을 목표로 교구 전역에서 많은 대표들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교는 교구 종합을 주교회의에 제출하기에 앞서 교구 책임자(들)와 협력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교구 종합이 교구장 주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교구 종합은 시노드 과정의 교구 단계에서 나눈 모든 것에 대한 진솔한 보고서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드러내야 한다.

당연히 이 자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사목 지도자들에게 기대와 기쁨부터 걱정, 두려움, 불확실함, 심지어 회의론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반응도 혼한 시노드 여정의 한 부분이다. 주교들은 교구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복합적 반응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곤 하시는 성령께 열려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수 있다. 양 떼의 착한

목자로서 주교들은 그 누구도 제외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느님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 4.3 시노드 과정에서 사제와 부제의 역할

사제와 부제의 직무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점이 있다. 하나는 교구장 주교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의 사목적 돌봄에 맡겨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 있는 성직자들은 주교와 자신들이 봉사하는 이들 사이에 도움이 되는 연결점이 되어 준다. 이는 사제들과 부제들이 주교와 일치하고 신자들에게 봉사하며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는 데에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사제들과 부제들은 주교를 대신하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교와 소통할 수도 있다. 사제들과 부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신자들이 함께 걷도록 도우며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앞을 향하여 걸어 나가도록 하는 데에서 친교와 일치 일꾼들이다.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은 쇄신의 전령으로 자기 양 떼의 진화하는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시는지를 알려 준다. 마지막으로 성직자들은 시노달리타스의 참된 영적 체험을 증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느님 백성이 성령께 더욱 집중하고 하느님 뜻에 함께 귀 기울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제와 부제는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와 동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리스도의 교회 됨의 더욱 시노드적인 방법을 증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제와 부제의 노력은 참으로 중요하다. 사제와 부제는 교회의 시노드적 본질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본당, 직무, 운동에서 시노달리타스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제와 부제는 지역 교회에서 시노드 과정을 위한 교구 단계의 전개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증진하고 가능하게 하도록 부름받는다. 사제와 부제는, 교구 사목 평의회, 사제 평의회, 본당 사목 평의회와 같이 교구에 이미 설립된 참여 기구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한다. 지역 교회의 시노드 기구의 참여, 특히 사제 평의회와 사목 평의회 참여가 명확히 요청된다(「예비 문서」, 31항 참조).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교구 차원의 이러한 참여 기구들은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참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이룩될 수 있다’”(「주교들의 친교」, 7항).

동시에 사제와 부제는 교구장 주교와 이 시노드 과정을 위하여 임명된 교구 책임자(들)의 계획과 관련하여 평신도들이 참으로 시노드 체험을 하도록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시노드 과정의 교구 단계에서 시작된 자문은



교구장 주교가 조율하며, “자기 (지역) 교회의 신부, 부제, 평신도에게 개별적으로 또 그 연합회들에도 제시”하고 “이때 남녀 축성 생활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여를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주교들의 친교』, 7항)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비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의 직무에서 “사도들로 뽑혔다는 것은 배타적인 권력을 누리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특권이 아니라 축복과 우애라는 포용하는 직무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은총 덕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지킨다. 예수님의 현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예비 문서』, 19항). 그래서 서품을 통하여 거룩한 은총과 은사를 받은 모든 성직자도 이러한 시노드 체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보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만남은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성찬례 거행으로 힘을 얻으며 하느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복돋워진다.

#### 4.4 로드맵(교구 단계를 위한 표본 순서)

각 교구 안에서 경청과 대화 단계를 수행하는 데에 포함되는 임무는 지역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1. 교구 책임자(들) 임명

각 교구는 개인 한 명이나 두 명을 교구 책임자(들)로 봉사하도록 선발해야 한다. <부록 가>는 이러한 책임자들이 지녀야 할 책임과 바람직한 자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두 명의 공동 책임자가 공동 책임의 본보기로 임명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교구 책임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최소한 남녀 각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들은 자원봉사로 일을 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이미 교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맡을 수도 있다. 교구 책임자는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가 될 수 있다. 교구들은, 교구 책임자(들)가 2023년 10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구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위하여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 2. 교구 시노드 팀 구성

교구 책임자(들)는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거나 교구장 주교가 임명하여 구성된 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활동해야 할 것이다. 교구 시노드 팀의 구성원들은, 본당, 운동, 교구 직무, 수도 공동체의 대표들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들은 교구 책임자(들)를 위한 자문과 활동 기구로 소집될 수 있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교구 단계를 넘어, 교구 시노드 팀은 교구장 주교와 함께 미래를 향한 교구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증진하고 이행하는 일을 이어 나갈 수 있다.

### 3. 교구를 위한 여정 식별

「예비 문서」와 「편람」은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문 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지침을 준다. 이 문서들은, 지역 교회와 사회의 현실과 도전 과제들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그리고 최근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교구 시노드 과정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교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기도와 성찰도 이 문서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4. 참여 과정 계획

각 교구는 다양한 기반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본당 차원의 모임, 본당 간 모임, 학교 단체, 지역 협의회, 온라인 플랫폼, 특수 언어 단체, 그리고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데에 적합한 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다.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경청할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체 예산, 물리적 설비,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자문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과 인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구 간 연대를 이룰 수 있다.

### 5. 시노드 자문 모임을 위한 조정자 단체 마련

교구 시노드 팀은 교구 전반에 걸쳐 시노드 자문 모임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정자들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당 내의 시노드 자문은 해당 본당의 조정자가 감독할 수 있고 본당 팀과 함께 일을 한다. 모든 조정자는 시노드 과정의 정신과 목적과 태도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이 「편람」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과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정자들이 교구 시노드 팀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맡은 개별 단체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과정을 식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6. 교구 시노드 팀과 지역 조정자들을 위한 방향성 연수회 마련하기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한 이해와 체험의 차원이 교구마다 다를 수 있기에 양성 연수회를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시노달리타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이 시노드 과정에 관한 기본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역량에는 시노드 자문 모임 수행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본 양성은 그 자체로 이번 시노드 과정의 소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부록 나〉는 전형적인 시노드 자문 모임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세심한 경청, 진솔한 나눔, 공동 영성 식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가 자료는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 7. 모든 이와의 소통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세계주교시노드에 관하여 널리 홍보하여 세계주교시노드의 중요성과 목적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 방법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홍보 자료들의 몇 가지 표본은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된다.

## 8. 시노드 자문 과정의 이행과 점검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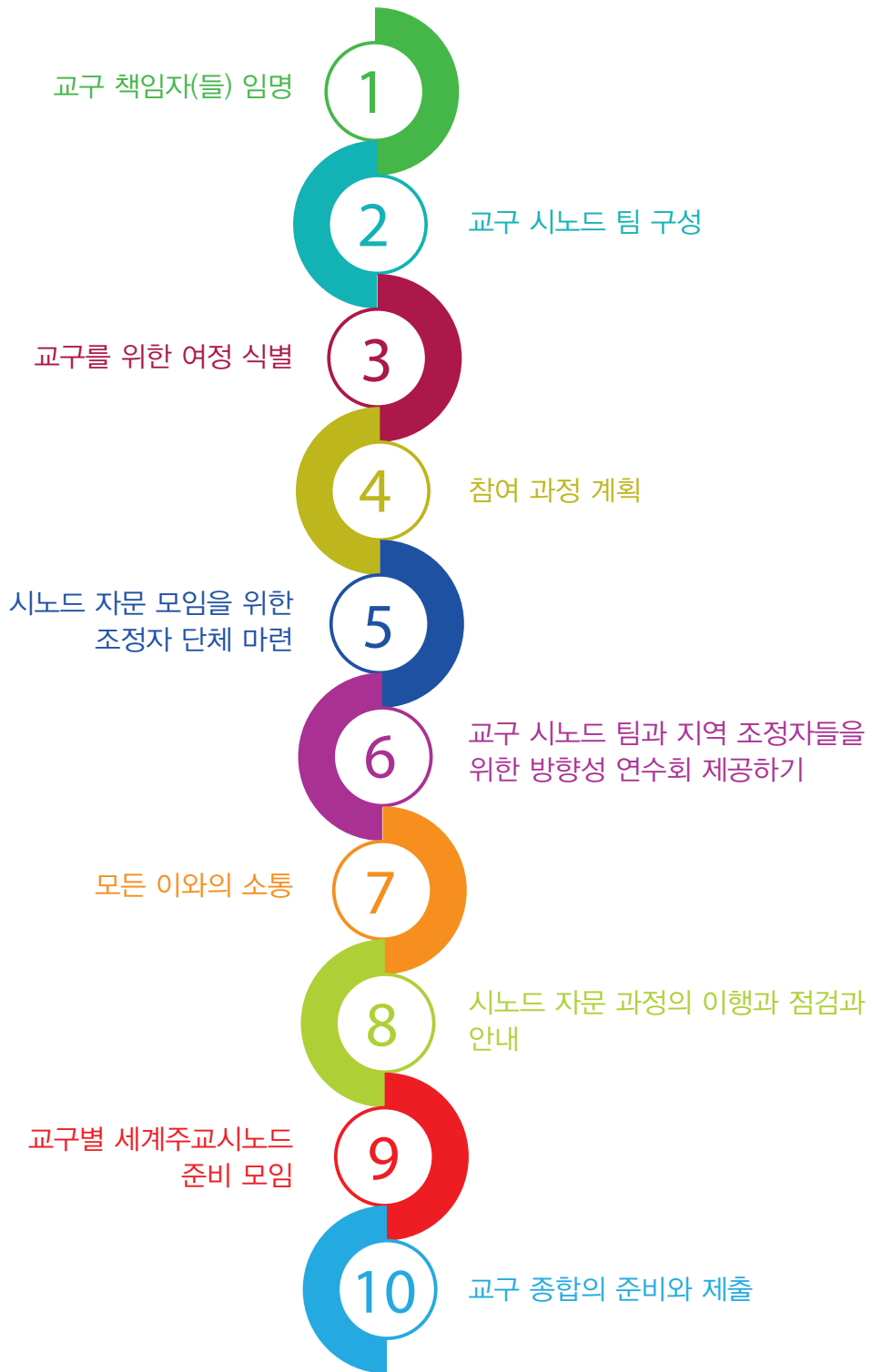
준비를 마치면 시노드 자문 과정이 시작된다. 이 시기의 핵심은, 교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노드 자문 모임이다. 교구 단계를 시작하고 성령께 전체 과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청하는 교구 전례 거행을 준비할 수 있다. 교구 단계 전반에 걸쳐 교구 책임자(들)는 각 교구 시노드 자문 모임의 조정자 단체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과정들을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며, 아이디어와 최선의 실천 방안들과 새로운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문 피드백의 제출 시한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다음에 설명된 교구 종합을 위한 지침을 따를 수 있다.

## 9.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

교구의 자문 과정은 전례 거행을 포함하는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으로 정점을 이룰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교구 전역에서 많은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하며, 이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온 교구를 부르고 계시는 시노드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경청하며 성찰하고 식별하고자 함께 모이는 것이다. <부록 다>에는 이 모임을 구성하는 제안들이 실려 있다.

## 10. 교구 종합의 준비와 제출

마지막으로 교구 종합은 교구 전역에 걸쳐 수집 정리된 모든 피드백과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의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부록 라>에는 종합을 위하여 제안하는 개요가 실려 있다. 이를 정해진 날짜까지 주교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을 최종 작성하고 나면, 교구 내에서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교구 책임자(들)의 임기는 세계주교시노드 과정 내내, 최소한 2023년 10월 세계주교시노드 총회까지 유지되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일련의 과정에서 교구 책임자들은 주교회의와 대륙별 모임을 위한 연락을 담당할 것이고, 교구가 계속해서 시노드 과정을 이어 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교구 책임자들은 교구의 자문 과정에서 나온 제안들을 자연스럽게 이행 단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 결국 시노드 과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 4.5 시노드 체험의 기본적 구성 요소들

위의 4.4에서 나열된 순서들은 지침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구 단계는, 2023년 10월 로마에서 개최 예정인 정기 총회와 같은 세계주교시노드 총회와 유사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개막 전례 거행, 대규모 회의, 소그룹 모임, 침묵과 기도의 시간, 비격식 대화, 체험 나눔(순례, 예술적 표현, 힘없는 이들, 장애인들, 노인들과 함께하는 체험), 폐막 전례 거행이다. 위 제2부에서 서술한 원리, 태도, 위험을 명심하면서, 시노달리타스의 이러한 기본적 구성 요소들은 지역 교회의 풍성한 시노드 체험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 5. 시노드 과정 구성을 위한 자원

### 5.1 교구 시노드 과정을 위한 방법론

각 교구는 교구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노드 체험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실행 방법을 식별할 수 있고, 과거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주교대의원회의의 웹 사이트에는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언과 자료들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과 단체는 그들 지역 교회를 통하여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개인과 단체는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주교들의 친교』, 제6조 참조).

각 지역 교회 내에서, 모임들은 지역적 맥락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노드 체험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노드 자문 모임’이 동일한 참가자 단체를 위하여 1회 이상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는 더욱 깊고 풍요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다른 방법은, 새롭게 단체들을 구성하여 더 많은 사람이 더 폭넓고 다양한 시각과 체험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인들은 자신들의 자문 의견을 직접 교구에 제출할 수 있다. 개인이 자문 의견을 제출하도록 적절한 정보와 자료들을 시의적절하게 배포하여 교구 종합에 이들의 시각이 담길 수 있도록 한다. 시노드 과정의 공동체적 체험은 개인 의견보다 더욱 권장된다. 이는 공동체적 체험이 함께 걷는 시노드 정신을 더욱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의견 제출자들이 시노달리타스 체험에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이들에게 동영상, 화상 회의, 성경 묵상, 기도를 제안할 수 있다.

많은 본당이 함께하는 시노드 자문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과 다양한 민족, 여러 세대 등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모으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본당이 합동 시노드 자문 모임을 계획할 수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가운데에서 교회 됨, 또는 그들이 놓인 맥락에 관련된 것들과 같이 함께 겪은 체험들을 서로 나누는 데에 집중할 수 있다. 본당 연합 운영 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시노달리타스의 주제와 시노드 과정의 자문을 이미 계획된 지역 또는 교구 모임에 통합시키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노드 과정의 교구 단계는 기존의 2021-2022년 사목 안전을 풍요롭게 하면서 또한 새로운 특정 요소들에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 5.2 시노드 과정의 비격식 차원

서로 경청하는 것은 서로를 알아 가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풍요로워진다. 이는 서로 만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공동의 활동을 나누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의 본보기로는 순례, 친목이나 자선 활동, 또는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것들이 있다. 참가자들의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것 이외에, 이는 지적 토론보다 실천적 행동에 더욱 매력을 느끼는 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함께 식사하시거나 함께 걸으시거나 그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쉬는 시간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자발적인 교환을 통하여 서로 경청하는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함께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의 참여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몇 가지 특정 사항을 더 자유롭게 명료화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신체 활동, 문화 활동, 친목 활동,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참가자들 간의 친교를 이루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고, 서로가 새롭게 형제애를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쇄신할 수 있다.

## 5.3 자문을 위한 주요 질문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근본 질문을 던진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지역 교회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시는가?”(「예비 문서」, 26항)

우리가 이 질문에 응답하려면 다음 사항들이 요청된다.

- 우리의 체험을 상기한다. 이 질문이 우리 지역 교회의 어떤 체험을 떠올리게 하는가?
- 이러한 체험을 더욱 깊이 있게 되짚어 본다. 체험을 통하여 어떤 기쁨을 얻었는가?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맞닥뜨렸는가? 어떤 상처가 드러났는가? 어떤 통찰을 끌어내었는가?
- 공유할 결실들을 모은다. 이러한 체험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은 어디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확인 사항들과 변화 가능성과 진행 순서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동의를 표명하는가? 지역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길들이 열리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근본 질문을 더욱 충분히 살펴보도록 돕고자 다음 주제들은 “실천된 시노달리타스”(「예비 문서」, 30항)의 중요한 측면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함께 걷기’가 깊은 상호 연관성을 지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 백성으로 서로 함께 걷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온 인류 가족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더욱 깊은 친교와 더욱 풍성한 사명을 위한 공동 식별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음 열 가지 주제에 각각 따르는 질문들은 시작점이나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단, 여러분의 다양한 대화가 다음 질문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 1. 여정의 동반자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지역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이들은 누구인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들은 누구인가? 동반자로 성장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는가?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소외된 채 남아 있는가?

### 2. 경청

경청은 첫 번째 순서이지만 편견 없이 열린 정신과 마음을 요구한다.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는 목소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평신도, 특히 여성들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경청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해하는가? 우리는 변방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잘 귀 기울이는가? 남녀 축성 생활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우리의 경청 능력에, 특히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경청하는 능력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특히 가난, 소외, 사회의 배척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

### 3. 발언

모든 이가 용기와 담대함(파레시아)으로, 곧 자유와 진리와 사랑으로 발언하도록 초대된다. 무엇이 지역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용기 있고 솔직하며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하도록 돕거나 방해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말하게 되는가? 가톨릭 매체뿐만 아니라 지역 매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이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선발되는가?

#### 4. 거행

‘함께 걷기’는, 공동체가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에만 가능하다. 기도와 전례 거행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의 삶과 사명에 영감을 주고 이끌어 주는가? 기도와 전례 거행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 어떻게 영감을 주는가? 모든 신자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독서직과 시종직에 참여하도록 어떤 자리가 마련되는가?

#### 5. 공동 사명을 위한 공동 책임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봉사이며, 모든 구성원은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우리는 모두 선교하는 제자들이다. 그런데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어떻게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라고 부름받는가? 세례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명의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가? 공동체는, 사회와 정치 참여, 학술 연구, 교육, 사회 정의 증진, 인권 보호,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돕는가? 교회는 이러한 구성원들이 선교적 방식으로 사회 봉사를 실천하도록 어떻게 돕는가? 선교적 선택에 관한 식별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

#### 6.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대화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요구하면서도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가? 지역 교회 안에서 대화의 자리와 수단은 무엇인가? 이웃 교구, 지역의 수도 공동체, 평신도 협의회와 운동 등과의 협력을 어떻게 촉진하는가? 시각의 차이, 갈등, 어려움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교회와 사회의 특별한 사안들은 무엇인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들과 우리는 어떤 대화와 협력을 체험하였는가? 교회는 사회의 다른 부문, 곧 정치, 경제, 문화, 시민 사회 분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며 어떻게 배우는가?

#### 7. 교회 일치

하나의 세례 안에서 일치하지만 다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화는 시노드 여정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과 교파의 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무엇을 함께 나누며 이 여정에 어떻게 함께하는가? 함께 걸으며 얻은 결실은 무엇인가? 어려움은 무엇인가? 함께 걸어 나가는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

#### 8. 권위와 참여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참여적이고 공동 책임을 지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추구해야 할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밝아 나가야 할 순서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지역 교회 안에서 권위나 통치가 어떻게 행사되는가? 협동 작업과 공동 책임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평신도의 직무와 책임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지역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를 풍요롭게 체험해 보았는가? 본당이나 교구의 사목 평의회 또는 사제 평의회 등과 같이 지역 차원의 시노드 기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는 참여와 지도력에서 더욱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접근법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 9. 식별과 결정

시노드 방식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을 식별함으로써 결정한다.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러한 방법과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교계 구조 안에서 의사 결정의 참여를 어떻게 증진하는가? 우리의 의사 결정 방법이 온 하느님 백성에 귀 기울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자문과 의사 결정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러한 자문과 의사 결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투명성과 책임감을 촉진하는 데에 이용되는 수단과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는 공동체의 영적 식별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 10.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

시노달리타스는 변화와 양성과 지속적인 배움을 수용하는 것을 수반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함께 걷기'와 서로에 대한 경청, 사명에 대한 참여와 대화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을 양성하는가? 시노드 방식으로 식별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진하고자 어떠한 양성을 하는가?

주교대의원회의의 웹 사이트에서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모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들을 제공한다. 각 교구, 본당 또는 교회 단체들은 이 모든 질문을 다루고자 하지 말고 각자의 맥락에서 가장 적절한 시노달리타스의 측면을 식별하고 그에 집중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진솔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들의 실제 삶의 체험들을 나누고 그들이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보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함께 성찰하도록 한다.



## 감사 인사

이 시노드 과정을 구성하고 조정하며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에 바라시는 교회를 짓는 데에 쓰시는 살아 있는 돌이 됩니다(1베드 2,5 참조). 사도들의 모후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 주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전구를 청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사명을 수행할 때에 오순절 위층 방에서처럼 어머니의 보호와 전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www.synod.va](http://www.synod.va)

[synodus@synod.va](mailto:synodus@synod.va)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 참여 | 사명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세계주교시노드  
편람

# 부록



# 교구 책임자(들)/팀

각 교구\*는 한 명이나 두 명을 교구 책임자(들) 또는 시노드 자문의 교구 단계를 위한 공동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선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책임자 한 명을 임명하는 것보다 공동 리더십의 형태를 권장한다. 공동 지도가 이 과정의 시노드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동료 지도자와 함께 일하면서 한 팀으로 서로 협력하여, 서로 배우고 책임을 나누며 여러분 교구의 시노드 과정을 위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활력을 불어넣기를 권장한다. 교구 책임자(들)/팀의 활동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이나 임무가 포함될 것이다.

- 교구와 주교회의(그리고 교구와 주교회의의 책임자나 팀) 간의 연락을 담당한다.
- 시노드 자문과 관련하여 교구 내의 본당들과 다른 교회 단체들의 기준점이 된다.
- 시노드 과정과 관련하여 교구장 주교를 위하여 주 책임자 역할을 한다.
- 팀과 함께 시노드 방식으로 일하며,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와 주교회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구 과정에서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한 주제와 사안들, 그리고 교구 전역에서 나온 자문 의견을 수집, 분석, 종합하는 과정을 전개하고 논의할 방법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 지역 차원의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모든 본당이 자문 과정에 협력하도록 초대한다. 본당들은 친교와 함께 걷기에 대한 감각을 촉진하고자 다른 본당들과 함께할 수 있다. 교구 책임자(들)/팀은 본당들이 형제애 정신과 공동 책임성을 증진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본당들이 서품받은 이들과 축성 생활자, 어린이, 젊은이, 독신자, 혼인한 부부, 가정, 노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남녀 평신도의 충만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를 권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문 과정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 민족적 배경의 다양성과 지역의 역량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가톨릭 신앙 실천에 미온적인 이들,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사람들, 다른 신앙 전통을 따르는 이들, 본당과 관련 없는 지역 또는 사회 공동체 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구 내의 각 직무, 운동, 교회 기구, 부서/사무국은 「편람」과 이에 따르는 문서에 포함된 질문들에 대한 의견을 그들의 구체적인 직무나 집중 분야의 상황에서 제시하도록 초대된다. 이러한 단체들은 각자 논의하거나, 서로 또는 교구의 본당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다. 교구 내 모든 다양한 사도직과 문화와 공동체, 단체, 계획들,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노력을 자문 과정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지역 교회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참된 체험을 증진한다.
- 본당과 공동체 등의 지역 차원에서 자문 과정을 수행하고 활성화하는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연수회, 웨비나(webinar), 영상, 자료 그리고 개별 지원과 같은 형태의 교육과 동반을 제공하여 그들이 시노달리타스의 의미, 이번 시노드 과정의 목적 그리고 그들이 증진하고자 하는 시노드 체험의 특징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추가 정보는 「편람」이나 주교대의원회의의 웹 사이트 참조).
- 교구 전역의 자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수령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본당과 교구 단체와 수도 공동체와 운동에 이 과정을 전달하여 최대한 폭넓은 참여를 이끌도록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본당들/공동체들이 자문을 수행하도록 각자 책임자/팀을 임명하도록 제안한다.
  - 본당들/공동체들이 지역 공동체 사람들과 자문을 위한 모임을 1회 이상 하도록 제안한다. 본당들/단체들은 특정 대상들(예를 들어 청소년, 청년, 혼인한 부부, 이주민과 난민, 신앙생활에 미온적인 이들, 가난과 소외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자문을 구하는 모임을 열고자 할 수도 있다.



- 본당들이 각각의 자문/대화를 종합하거나 기록하는 방법(총무/서기가 참가자들이나 활성가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회의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 사용)을 찾는 것을 제안한다.
- 교구 책임자(들)/팀에게 모든 의견을 보내는 구체적인 마감 날짜와 과정/수단을 정한다.
- 자문 과정을 마친 뒤에, 그 자문에 참여한 이들과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 개최를 장려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공유하고 지역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과 방식을 통합하기 위한 다음 순서를 식별하도록 한다.
- 자문 단계 동안 각 본당/공동체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원과 격려와 동반을 제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 적절한 방법으로 지역 자문에서 나온 종합/의견/통찰을 취합한다.
-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의 준비 모임(〈부록 다〉 참조)의 구성을 감독한다.
- 취합된 의견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최대 열 장 분량으로 하나의 간결한 교구 종합을 준비하고 이를 정해진 마감 날짜까지 주교회회에 전달한다. 이 종합은, 교구 책임자(들)가 주교 또는 그의 대리자(〈부록 라〉 참조)와 협력하여 협동 작업으로 마련해야 한다.
- 교구 종합을 적절한 방법으로 주교회회에 제출한다.

교구 책임자(들)와 팀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살아 있는 신앙을 지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 타고난 협력자.
-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
- 다양한 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 다양한 문화, 세대, 교회 배경을 가진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 교구 구조와 절차를 잘 아는 사람.
- 협업 계획이나 시노드 과정에서 사전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동 지도자 또는 팀과 함께 일하는 겸손함과 다른 이들의 통찰력과 은사에 자비롭게 열려 있고 새로운 진행 과정을 시도하는 사람.

교구 책임자(들)는 성직자 가운데 한 명일 필요는 없다는 사항을 알아 두어야 한다. 만약 공동 지도 형태를 취한다면, 남녀 한 명씩으로 공동 지도자들을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그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평신도여야 한다.

교구 책임자(들)와 협력하는 팀은 교구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고 교구의 핵심 지도자들을 포함한다. 이 팀은 남녀 평신도, 성직자, 축성 생활자로 구성하여, 다른 문화와 세대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교회의 다양한 직무와 은사, 특히 젊은이들과 가정, 이주민과 난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목 활동을 드러낸다. 팀의 일부 구성원이 사전에 또는 최근에 지역이나 교구나 국가의 시노드 과정에 참여해 보았거나 이와 유사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주: 「편람」과 이에 따르는 모든 부록과 자료에서 ‘교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를 뜻하며, 이는 동방 교회의 교구, 자치단 또는 이에 동등한 모든 교회 기구로 대체될 수 있다.



주교대의원회의

# 시노드 자문 모임 조직을 위하여 제시하는 지침

시노드 자문 모임은 본당의 다양한 단체 간에 또는 여러 본당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 조직될 수 있다. 다른 교구 기구나 수도 단체, 평신도 단체도 자문 모임을 개최하는 데에 협력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는 순서들의 일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차원의 자문 과정과 모임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대화하고 참된 시노드 체험에 참여하도록 증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식별하는 **운영 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본당 공지, 소셜 미디어, 서한 등을 통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학교와 사회 복지 센터와 같은 지역 이웃과 교회 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당 기간 교회 공동체와 정기적 교류가 없었던 이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배척받는 이들 또는 흔히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공동체, 체험, 문화, 연령,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체 규모는 사용 가능한 장소와 활성화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 모임 약 2-3주 전에 기도와 성찰을 위한 **준비 자료**를 모든 참가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간략한 배경 내용, 주요 성찰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식별하기 위한 제안 방법과 권장되는 성경 구절들이 포함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도 시노드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공지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풍요로운 대화를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5. 주요 **성찰 질문**들은 유의미하고 간략해야 한다. 많은 질문을 준비하여 피상적으로 다루기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질문의 수가 적은

것이 더 낫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다음의 근본 질문을 던진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지역 교회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시는가?”(「예비 문서」, 26항)

우리가 이 질문에 응답하려면 다음 사항들이 요청된다.

- 우리의 체험을 상기한다. 이 질문이 우리 지역 교회의 어떤 체험을 떠올리게 하는가?
- 이러한 체험을 더욱 깊이 있게 되짚어 본다. 체험을 통하여 어떤 기쁨을 얻었는가?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맞닥뜨렸는가? 어떤 상처가 드러났는가? 어떤 통찰을 끌어내었는가?
- 공유할 결실들을 모은다. 이러한 체험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은 어디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확인 사항들과 변화 가능성과 진행 순서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동의를 표명하는가? 지역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길들이 열리고 있는가?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역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 온 여정에 관하여 성찰하는 것은 흔히 매우 효과적이다.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역사는 어떠하였는가? 지금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공동체는 어떠한 길을 밟아 왔는가?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셨는가? 함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종종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앞길을 이끌어 준다.

사람들이 이 근본 질문을 더욱 충분히 살펴보도록 돕고자 열 가지 주제들이 마련되어 “실천된 시노달리타스”(「예비 문서」, 30항)의 중요한 측면들을 강조한다. 열 가지 주제에 각각 따르는 질문들은 시작점이나 풍요로운 자문을 구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편람」의 제5부에서 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의 첨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6. 자문 모임을 위하여 선택된 방법과 형태에 따라 충분한 인원의 단체 **활성가**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들은 이 과정의 수행을 위하여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문 **종합**을 준비할 이들로 구성된 팀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7. 모임에서 **공동체 기도와 전례**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서로 경청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과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한다. 의미 있는 기도 양식들을 이용하여 하느님의 인도와 감도를 청하여, 그분께서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친교를 이루도록 이끄시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례와 공동 성경 묵상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8. 시노달리타스의 원리가 적용되는 적절한 방법을 **단체 대화**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성적 대화** 방법은 능동적인 참여, 세심한 경청, 사려 깊은 발언, 영적 식별을 촉진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 6-7명으로 나누어 소그룹을 이룬다. 이 방법은 최소한 한 시간이 소요되며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전달받은(이 부록의 5항 참고) 성찰 질문과 관련한 자신의 기도의 열매를 공평하게 차례대로 나눈다. 이때에는 토론 없이, 모든 이가 그저 서로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룹 전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집중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내면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단계는 참가자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과 침묵의 시간에 그들 마음을 울린 것에 대하여 나눈다. 약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영적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대화 안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찰한다. 새로운 통찰과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도 기록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로 대화를 마칠 수 있다. 보통 이 소그룹에는 활성화와 서기가 한 명씩 있다(이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9. 단체 대화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소그룹 과정에서 체험한 것을 **되짚어 보고** 나누어야 한다. 그들의 체험은 어떠하였는가? 장단점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발견하였는가?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전개 방법에 관하여 배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는가?
10. 그런 다음 참가자들은 운영 팀/활성가 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피드백**을 결정한다. 「편람」의 제4부에서 서술하는 교구 종합을 위한 안내 질문들을 지역 단계에서 이러한 피드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부록 라〉 참조).

11. 그리고 나서 모든 참가자는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마무리한다. 각 소그룹에서 대표자 한 명이 그들이 나눈 체험을 간략하게 나눌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시노드 과정의 다음 단계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의견이 온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이바지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한다. 감사의 기도나 노래로 모임을 마칠 것을 권고한다.
12. 모임 이후에 운영 팀/활성가 팀 구성원들은 체험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소그룹들이 제출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종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만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교구 책임자(들)에게 자신들의 종합을 전달할 수 있다.
13. 사람들이 대면으로든 온라인으로든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문자 메시지나 전화, 라디오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모든 이, 특히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자료는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주교대의원회의

##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

각 지역 교회의 교구 단계는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으로 완성된다. 이 준비 모임은 교구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전례 여행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교구의 시노드 과정의 체험을 성찰하고, 교구 전역에서 있었던 시노드 자문 모임에서 나온 피드백에 귀 기울이며, 지역 교회의 현실과 시대의 표징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성령께서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 있는 교구에 요청하시는 것을 식별하는 기회를 준다. 교구 단계 동안 이루어지는 자문 과정의 대부분은 본당, 직무, 다른 교회 단체들과 같은 지역 교회의 특정 공동체들 안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교구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의 목표는 소수자 집단과 변방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교구 전체의 모든 부분의 대표들을 모으고, 참가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귀 기울이며 성찰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준비 모임을 마치면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 결과는, 교구 전역에서 이루어진 시노드 자문 모임에서 나온 피드백과 함께 교구 종합에 포함되어야 한다(교구 종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부록 라>를 참조).

### 목표

- ㄱ. 수개월에 걸쳐 하느님 백성과 함께한 시노드 자문의 교구 단계를 완성한다.
- ㄴ. 시노드 여정을 함께 걷는 교구 여정에서 대두된 현실과 체험을 기념하고 성찰한다.
- ㄷ. 교구의 여러 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된 그룹과 교구가 함께한 자문의 주요 주제들을 강조한다.
- ㄹ. 다양한 공동체(본당, 직무, 운동, 학교, 성직자, 수도 공동체, 소외된 이들, 젊은이들, 문화 단체 등)의 구성원들을, 교구 전역에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는 교구 종합 관점에서 자문 과정의 체험과 의견을 성찰하는 데에 포함시킨다.
- ㅁ. 하느님께서 교구민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지역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뜻 그리고 하느님께서 부르시어 교회가 교구 안에서 더 깊은 친교, 더 온전한 참여, 더 큰 결실을 맺도록 하는 사명을 향하여 걷게 하시는 길을 식별한다.
- ㅂ. 최선의 실천, 시노드 여정, 함께 걸으며 더욱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새로운 추진력과 활력, 상호 경청, 공동 책임성을 끌어낸다.

- 사. 온 교회의 이번 시노드 과정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교구의 자문 과정 동안 하느님 백성이 나눈 것들을 전달하는 교구 종합을 마련해 나간다.

### 참가자

이 시노드 모임의 구성원은 교구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교구는 인구 규모, 지역적 거리, 가용 자원,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들에 따라 이 지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들이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교구장 주교, 보좌 주교, 교구 책임자(들)/팀.
- 가난을 겪는 이들, 노인들, 소수자 집단들, 고립된 이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난민들, 토착민 공동체들 등 빈번히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이들.
- 평신도 지도자들(다양한 직무와 교구 기구의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
- 기타 평신도들(본당이나 다른 교회 기관에서 초대받은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
- 성직자들(교구 사제, 수도 사제, 부제 등).
-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회원들(은사의 다양성을 반영)과 사도직 활동과 자선 활동 기관의 지도자들.
- 관심 있는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 대표자들(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아니지만 교회에 유용한 관점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
- 활동가들, 사목 전문가들 또는 교회론 전공 신학자들을 포함하여 모임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

###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의 안건과 형태

이 준비 모임의 안건은, 준비 모임 전까지 교구에서 이어 온 시노드 여정을 기념하고, 교구 전역에서 이루어진 자문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들을 성찰하며 교구의 하느님 백성의 경청과 식별의 결실을 나타내는 교구 종합을 만들어 내고자 나아가는 것이다. 이 교구 종합은 주교회의에 제출할 교구의 의견이 될 것이다.

이 모임의 형태는 주교와 교구 책임자(들)/팀의 식별로 구성되며, 교구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된 목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더 많은 제안과 정보는 주교대의원회의의 웹 사이트를 참조). 교구 단계는 체험한 것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성령의 인도를 청하며 전례 거행으로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모임을 위한 다른 요소들을 준비하는 방법은 각 교구가 판단할 수 있다. 교구 책임자(들)에게는 교구 전역에 걸친 자문 과정에서 나온 피드백을 모두 취합할 책임이 있다. 이 피드백은 교구 단계를 마무리하는 이 모임에서

참가자들에게 제시될 수 있다.

### 온라인 또는 온-오프 통합 형태의 시노드 모임(E-시노드 모임) 실행 가능성

지역 자문 회기들이나 교구 전역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교구 차원의 거행을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온-오프 통합 형태의 모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모임 또는 대면 모임과 온라인 모임의 조합은,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이나 온-오프 통합 형태의 모임이 기도, 친교, 서로와 성령에 대한 세심한 경청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활성가들이나 사회자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 편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가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이나 온-오프 통합 형태의 모임(E-시노드 모임)에서 젊은이들의 역할

교구가 이러한 E-시노드 모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젊은이들을 포함하도록 권장하여 모든 참가자가 사용하기 쉽고 편하게 하는 창의적인 방식을 찾아내도록 하며 각 연령 집단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가상 플랫폼, 쌍방향 소통 기술과 같은 도구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교구 책임자(들)/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답변들을 수집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노력에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 교구 종합의 준비

교구 종합은 교구 전역의 온 하느님 백성이 식별한 주요 결실들을 전달한다. 이 종합은 최대 열 장의 서면으로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미지, 영상, 이야기, 예술적 표현, 개인 증언과 같은 기타 자료들이 참가자들의 체험과 의견들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교구 종합에는 표현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참가자들의 체험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종합은 일련의 일반화되거나 교리적인 정당함의 언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식별과 대화에서 나온 모든 것에 충실해야 한다. 서로 반대되는 시각일지라도 삭제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시각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언급해야 한다. 그저 참가자 가운데 소수가 표명한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때로는 소위 ‘소수 의견 보고서’의 관점이 하느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증언이 될 수도 있다.

종합의 내용은 제안으로서 제시된 다음 질문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그 목적은 교구민들의 시노드 체험과 식별의 다양한 결실, 통찰, 기쁨, 도전 과제들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 자문 과정에 관해서 교구에서 밝은 주요 순서들은 무엇이었는가? 제기된 주요 질문들은 무엇이었는가? 최대한 많은 참가자를 참여시키고 변방에 다가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 교구민은 얼마나 되는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참가자들 그룹이 있었는가? 어떤 사유로든 참가하지 않은 특정 그룹이 있었는가?
- 자문이 이루어진 전체 체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좋았던 점과 그렇지 못하였던 점은 무엇이며, 위로를 주었던 점과 낙담을 주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성향, 태도, 감정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가? 경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긴장 상태나 의견 충돌이 있었는가? 어떤 주제나 사안이 다양한 시각들을 도출해 내었는가? 전반적으로 이 체험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져다주신 결실은 무엇이었는가?

- 지역 모임들에서 나온 피드백 가운데 특히 중요하거나, 놀랍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지평이 열렸는가? 감동을 준 특별한 이야기나 실생활 경험이 있었는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관점이 강한 울림을 주었는가?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관점은 무엇이었는가?
- 전반적으로 현재의 빛과 그림자를 포함한 지역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현실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공동체에 어떤 영감을 주셨는가? 참가자들은, 교회의 영성 생활, 문화, 태도, 구조, 사목 실천, 관계, 선교 활동에서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교회 부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 교회를 초대하시어 시노달리타스를 키우게 하고 계시는가? 참가자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바람과 열망을 표현하였는가?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볼 때, 교구는 더욱 공동합의적이 되는 데에 어떤 순서들을 밟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끼는가? 온 교회와 친교를 이루며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서 우리 교구가 앞으로 밟아 나갈 순서들은 무엇인가?
- 어떤 문화적 이미지(들)이 우리가 체험한 시노달리타스를 분명히 표현하는가?

종합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팀으로 모여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소규모 팀은 교구장 주교와 교구 책임자(들)와 협력하여 종합하는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제출된 내용들을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 팀의 모임은 성령의 인도 아래 교구 전역의 하느님 백성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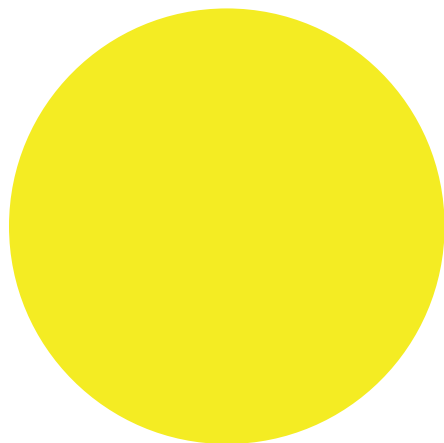


자체로 시노드 정신을 따른 영적 식별을 해야 한다.

각 교구는 교구별 세계주교시노드 준비 모임 이전이나 이후에 교구 종합을 마련할 수 있다. 단 그 모임의 결과들이 교구 종합에 포함되어야 한다. 되도록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가 종합에 반영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의 본보기로 초안 작성 팀 구성원들은 물론 피드백을 종합하는 과정도 모든 이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따르는 교구 여정의 시금석으로 종합의 초안이 마련되면 공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교구 종합을 주교회의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하느님의 백성이 교구 종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주교대의원회의



주교대의원회의